

A-4

복합 스트레스 내성 유전자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고구마의 개발 및 특성규명

임 순^{1,3}, 양경실¹, 권석윤², 백기엽³, 곽상수², 이행순¹

한국생명공학연구원 ¹식물세포공학연구실, ²환경생명공학연구실, ³충북대학교 원예학과

목적

세계 7대 작물인 고구마(*Ipomoea batatas* (L.) Lam)는 21세기 식량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작물 중 하나이다. 분자육종의 기술을 이용한 신기능성 고구마의 개발은 고구마 산업에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. 그러나 고구마 형질전환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. 본 연구에서는 복합스트레스에 내성을 갖는 고구마를 개발하기 위하여 산화스트레스 유도성 *SWPA2* promoter (Kim et al., 2003)의 조절하에 엽록체에 CuZnSOD와 APX를 동시에 발현 (Kwon et al., 2002)되는 형질전환 고구마를 개발하고 methyl viologen (MV)에 의한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조사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1. 식물재료 및 형질전환

식물재료: 고구마 (*Ipomoea batatas* cv. Yulmi)

embryogenic callus

발현벡터: *SWPA2pro::SOD/APX*

형질전환: particle bombardment 방법

2. 산화스트레스 처리

형질전환 식물체의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형질전환 식물체 및 형질전환 식물체를 growth chamber (25°C)에서 생육시켜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였다. 완전히 전개된 3, 4, 5번째 잎에서 지름 10 mm의 leaf disc를 15개 취해 0, 2.5, 5, 10 μM의 MV

를 포함한 용액에 띄워 12시간 간격으로 용액의 이온 전도도를 측정하여 세포 손상도를 측정하였다.

결과 및 고찰

- 산화스트레스 유도성 *SWPA2* promoter에 의해 엽록체 CuZnSOD와 APX가 동시에 발현되는 벡터를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고구마 식물체를 제작하였다.
- 형질전환 고구마 식물체는 비형질전환 고구마 식물체에 비해 5 μM의 MV에서 ion leakage가 50% 감소되어 세포손상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었다.
- 향후 식물체 (whole plant)를 대상으로 저온처리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에서 형질전환 고구마의 내성을 검토할 예정이다.

인용문헌

- Kim KY et al. (2003) A novel oxidative stress-inducible peroxidase promoter from sweet potato: molecular cloning and characterization in transgenic tobacco plants and cultured cells. Plant Mol. Biol. 51: 831-838
- Kwon SY et al. (2002) Enhanced tolerance of transgenic tobacco plants expressing both superoxide dismutase and ascorbate peroxidase in chloroplasts against methyl viologen-mediated oxidative stress. Plant, Cell and Environment 25: 873-882